

# 해남 우수영~신안 장산·신의도 뱃길 열린다

## 군-신진해운 협약... 오늘부터 카페리 여객선 운항 섬주민 교통편의 향상·천일염 등 물동량 증가 기대

해남군 우수영에서 신안군 장산도·신의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명현관 해남군수와 (유)신진해운 박금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영-장산도-신의도 항로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26일부터 하루 3회 연중 운항할 여객선은 49인승 카페리여객선 드림 아일랜드호로 여객정원 314명, 차량 37대를 선적할 수 있다.

우수영에서 신의도까지는 1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기존 목포-신의 항로에 비해 1시간 가량이 단축된다.

또한 8월에는 신규 여객선을 추가



~신안(장산도, 신의도) 여객선 운항 업무  
2023.6.23.(금) 10:00 취항식

로 투입해 40분 가량이 소요되는 우수영-장산도 구간을 별도 운항할 계획으로 있어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산도와 신의도, 하의도는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등이 위치해 연중 관광객들이 붐비는 지역으로, 항로가 개설되면 우수영항을 통한 소금 등

수산물 물동량 증가와 관광객 유입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 우수영항은 인근 시군에서 접근이 원활하고, 무료 주차공간이 넓어 차량 이용에 부담이 없으며 서울, 목포, 순천, 부산 등 타지역으로 진출하기가 편리한 교통의 요지이다.

현재 제주도를 왕복하는 쾌속 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업무협약을 통해 해남군은 우수영항 터미널에 매표소 등을 설치하고 운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우수영-장산도·신의도 간 여객선 취항은 우수영항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로, 우수영 오일장과 관광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수영항이 서남부의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여객선사와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운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 곡성, 농·축산물 12개 품목 가격안정 최저가격 결정 고시

곡성군이 지난 22일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결과는 곡성군 홈페이지에 고시됐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상품 기준으로 2020년~2022년 3개년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해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 대상 품목으로는 쌀, 고추, 옥수수, 팥기, 팥, 토란, 앞뜰개, 매실, 사과, 배, 감, 한우 12개 품목이다.

곡성군이 결정한 2023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은 (1kg 기준, 한우는 지육단개) ▲쌀 2,465원 ▲건고추 1만7772원, ▲꽃고추 2612원 ▲옥수수 916원, ▲팥기 7044원 ▲팥 2772원 ▲토란 1645원 ▲앞뜰개 6889원 ▲매실 1692원 ▲사과 2,152원 ▲배 2284원 ▲감 1788원 ▲한우(비육우/암) 1만9254원 ▲한우(비육우/수) 1만9123원 ▲한우(비육우/거세) 2만120원이다.

군 관계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황상연 기자

## 순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순천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위해 2023년 2차 검정고시 수업을 운영하며 원서접수도 지원하고 있다.

검정고시 대비 수업은 오는 8월 9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주 4회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한국사 6과목을 진행하고 있다.

검정고시 원서접수는 26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지원한다. 검정고시 신청은 최종학력증명서(제적증명서, 정원의관리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1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1차 검정고시에서 49명의 청소년이 응시하여 41명이 합격했다"며, "검정고시 대비반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취업,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최적후보지 '연향들 일원' 선정 스포츠·문화 융·복합과 에너지순환 가능한 최적입지후보지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자원순환시설)의 최적 후보지로 '연향들(하단부) 일원'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독립적 기구로 활동해온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와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순천시에 통보해왔다.

수도권지역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매립장에 생활폐

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순천시는 12월 말까지 입지를 결정·고시해야 2029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

자원회수시설은 세계적으로 탄소저감, 에너지이용 측면에서 도심 인근에 설립하는 추세이며, 국내에는 하남시, 평택시가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도심과 가까운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하남의 유니온파크보다 더욱더 친환경

적이고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도입해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체육시설, 공원 및 문화시설 등의 융·복합 시설을 설치하여 순천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직매립 금지에 대한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절실히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이후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 영암서 자전거타고 '국토종주' 길 생긴다

### 행안부 '자전거길 정비사업' 선정... 사업비 6억 확보



영암에서 자전거를 타고 영산강을 거쳐 국도를 종주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영암군이 최근 행안부의 '2023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친환경, 건강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전거 순환노선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으로 영암군은 총 6억 원을 들여 현대삼호중공업 정문-영산강하구둑-영산호관광지-세한대

학교를 잇는 총 22.4km 구간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자전거길 9.9km는 손보고, 단절구간 3.8km는 잇는다.

정비사업으로 차선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길 포장 등이 끝나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암군은 자전거 통학 안전을 위해 영암읍 영암초·중·고등학교 주변 등·하곳길 약 2km 구간도 전년도 예산 5억 원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

영암천과 마호천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약 12km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시설설계용역도 진행 중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전거는 레저, 친환경교통, 건강 수단이다"며 "영암군민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건강을 유지하고, 학교는 물론이고 전국종주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 광양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폐회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5건 안건 처리

광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3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 3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박문섭 의원),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 등 3건은 수정의결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영배 의원) 등 3건은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청년농업인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대원 의원) 등 3건은 수정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대의견을 덧붙여 원안의결

했다.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 ▲지방세·세의수입의 체납액 공제적 징수 ▲정확한 세입 추계로 재원의 안정 확보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성과 중심의 생산적인 예산편성 ▲부진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 ▲부서별 성과목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결산서와 첨부서류 작성 철저 ▲결산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 등 3건은 수정의결했다.

서영배 의장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각종 오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었다."며,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지적사항과 지난 5월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 신안 '6·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

### "6·25참전 영웅들께 존경·감사의 시간 가져"



신안군은 지난 23일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께 존경과 감사!"이란 주제로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6.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군의원, 사회기관단체장,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6.25전쟁의 분단의 역사를 담은 영상 상영, 모범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격려사, 영웅의 제복입혀드리기, 6.25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은 평소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혁신면 박도순에게 전라남도 표창장을, ▲압해읍 박봉훈, ▲장산면 김원태 ▲압태면 이복동에게 신안군수 표창패를 수여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또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존중받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영웅의 제복 입혀드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장동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올해는 6.25전쟁 73주년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숭고한 6.25정신을 후손들이 이어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조국을 먼저 생각했던 6.25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며 "참전용사와 유가족분들께 명예선양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 김한중 장성군수, 복숭아 농가 '현장 간담회'

### "올해 지원 대책 확대... 농가 애로사항 신속 해결 노력"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 22일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2층 교육장에서 복숭아 재배 농가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농협조합장,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장성군에서 재배된 복숭아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114농가에서 47.5헥타르(ha)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농가 요청사항을 청취한 김한중 군수는 먼저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로했다. 이어서 "앞서가는 일류농업 실현을 위해 올해 과수분

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농가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친환경 해충방제 등 6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신규과원 조성 및 과원시설 지원 ▲저온경감시설 및 묘목 지원 ▲생산기반 구축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스마트팜 전문단지 조성 인프라 구축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장성물' 구축 운영 ▲과일 간식 확대지원 7개 사업에 29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장성=심재식 기자

## 광양, 여름철 대비 본청·읍면동간 상호 협력

### 태풍 호우 폭염 대비 철저... 안전한 여름 휴가철 나기 강조

광양시는 정인화 시장 주재로 6월 중 읍면동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22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본청과 읍면동간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울여름에 엘니뇨 발생 확률이 높아 고온과 이상기후가 우려되고,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위험요소를 철저히 파악하고 사전대책을 추진해 연례적인 반복적 피해사태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장 주요 현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6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7월 야경 시티투어 추진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 대응 ▲시민안전보험 운영 홍보 ▲백운산 4대계곡 일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치료비 변경 안내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추진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급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홍보 등이 논의됐다.

읍면동에서는 각종 봉사활동을 비

롯하여 읍면동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상황, 폭염 대비 경로당 점검 상황 등을 공유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태풍, 집중호우 및 폭염을 대비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름철 재난대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하계휴가철에 백운산 4대계곡을 찾는 내방객이나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방학과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양시는 시정이 시민의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매일 정기적으로 본청과 읍면동 간 시정현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읍면동장 회의'를 하고 있다. /광양=조순익 기자